



사람도, 자연도
다 같이 풍요롭고 건강하게
Fertilizer & Global

나무를 생각하는 유일한 기업
수목조경 전문회사
태흥 F&G



ALL IN ONE
코코 피트 + 질 석 + 규 조 토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 01 일반 경량상토와 대비하여 밀도가 높아, 추가적인 마사토 혼합이 불필요하며 수목의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합니다.
- 02 거칠고 굵은 입자의 원료를 사용하여 통기성과 물빠짐이 좋습니다.
- 03 습윤제를 첨가하여, 적정수분 유지가 용이합니다.
- 04 보비력(CEC)이 높고 pH가 안정화되어 있어, 영양성분의 과부족에도 완충능력을 가집니다.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50L
*침엽수용, 활엽수용 전용상토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저감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용 토양개량제



- 생생토 골드 20kg
- 토양개량효과 증진
 - 천연부엽토(강원 홍천) 30% 함유로 가스피해 없는 안전한 유기물과 영양성분 공급
 - 유용 토양 미생물로 병해예방
 - 보습제함유로 수분 부족으로 인한 장해예방
 - 뿌리활착과 원기회복으로 수목 고사율 감소



- 조경용 고품비료 20kg
- 비료효과 기간이 일반 복합비료의 3~4배
 - 3년이상 "성목 관리용 비료"
 - 조개탄 모양으로 시비가 편리
 - 수목의 푸름, 꽃빛깔을 신선하게 유지
 - 황산칼리 함유로 하고현상 및 염도피해 방지

검색창에 **나무비료** 를 치시면 태흥F&G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구매는 **조경수협회 쇼핑몰** 에서 가능합니다.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Venture for
Tomorrow
벤처인중기업

본사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9 그린프라자 303호
공장 경북 의성군 금성면 공릉로 281 태흥에프엔지
상담문의 032-715-5581

조경수
2023.01+02+03 Vol.178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조경수

2023.01+02+03 Vol.178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Korea Landscaping Tree Association



동화기업 · 한솔홈데코 협력업체

대 우 임 산

조경 / 제재소 / 산림개발

소나무, 해송(농장50만평) 전국최대보유

대표 구본찬 전무 구본문

충남 당진시 서해로 6276, 2층 (시곡동) 사무소 041-355-6363

휴대폰 대표 010-5409-9964 / 전무 010-5317-3115

팩스 041-356-6802 이메일 hara7575@naver.com



(주)국일화학의 New-Brand Name "플라빙"

산(山)에서 미래(未來)를

컨테이너(조경포트), 시설양묘재배용기 등
플라스틱 성형 전문생산 업체



◆ 4구(분리형) (4.5ℓ, 6.4ℓ)
. 크기 : ϕ 200 x H200 / ϕ 246 x H210
. 용도 : 대형묘목/소형 조경수 생산용



◆ 시설양묘용기- 6구
. 크기 : 1,350ml (ϕ 120* ϕ 80)
/ 420 x 280 x H 170
. 용도 : 소나무, 편백 2년생 등



◆ 화분140(블루베리재배용기)
. 크기 : 1400ml(ϕ 830 x H450)
. 용도 : 블루베리 재배전용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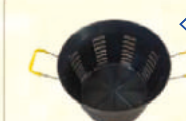
◆ 화분받침대(6구,9구,20구)
. 크기 : 6구-450 x 300 x 80
9구-382 x 382 x 79
20구-470 x 377 x 80



◆ 삽목상자100 / 160
. 크기 : 520 x 370 x 100
/ 520 x 370 x 160
. 용도 : 파종상자, 묘목삽목 생산용



◆ 화분 4.5,7,12,19,25
. 크기 : 4.5 ℓ, 7.0 ℓ, 12.0 ℓ 25.0 ℓ
. 용도 : 소,중형 조경수 생산용



◆ 조경포트 20형/35형/45형/65형/95형
. 크기 : ϕ 335xH305 / ϕ 430xH350
ϕ 470xH345 / ϕ 520xH375 / ϕ 583xH420
. 용도 : 중,대형 조경수 생산용

■ 산림용 자재 품목 및 규격 (규격에 없는 제품도 생산, 판매중)

품 목	크 기 (가로x세로x높이)	직경/셀용적 (mm/ ℓ)	품 목	크 기 (가로x내경x높이)	용적 (ℓ)	비 고
4구(분리형)	400x400x80	ϕ200/4.580	화분4.5	ϕ211xϕ200xH200	4.5 ℓ	색상5종
6구	420x280x170	ϕ120/1.350	화분6.4	ϕ246xϕ230xH200	6.4 ℓ	색상5종
특 6 구	510x340x160	ϕ109/0.863	화분7	ϕ257xϕ200xH200	7.0 ℓ	색상5종
12구	450x340x170	ϕ102/1.050	화분12	ϕ300xϕ270xH250	12.0 ℓ	검정색
15구(일체형)	425x255x162	ϕ75/0.510	화분25	ϕ385xϕ358xH300	25.0 ℓ	검정색
24구(일체형)	420x280x140	ϕ64/0.310	화분140	ϕ830xϕ750xH450	140.0 ℓ	
40구(160)	450*280*115	50*50/0.160	조경포트 20형	ϕ335xϕ250xH300	19.0 ℓ	
40구(270)	443x280x140	50*50/0.270	조경포트 35형	ϕ427xϕ335xH350	35.0 ℓ	
88구	440x320x65	ϕ36/0.043	조경포트 45형	ϕ470xϕ400xH345	46.0 ℓ	
삽목상자100	520x370x100	파종상자	조경포트 65형	ϕ520xϕ450xH375	65.0 ℓ	
삽목상자160	520x370x160	삽목상자	조경포트 95형	ϕ589xϕ507xH427	95.0 ℓ	
삽목포트176	535x370x60	30*30/0.036	용기받침대(P/P)	1,200x1,000x205	파렛트형 받침대	

※ 다양한 시설양묘용기, 조경수용기, 화분 등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국일화학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오룡동길 19 (부동리153-1)

TEL : 044) 867-9631~2 FAX : 044) 867-2231

http://www.kukilchem.co.kr / E-mail : kukilchem@hanmail.net



볼보 소형 전기 굴착기 ECR25

※본 사진의 옵션사양은 이미지 컷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볼보의 새로운 미래-

ECR25 **ELECTRIC**

볼보가 국내에 새롭게 선보이는 소형 전기 굴착기 ECR25는 고성능 배터리 파워로 전기모터와 유압 펌프가 유기적으로 구동되어 소음없이 강력한 작업 성능을 발휘합니다.

전기 소형굴착기 ECR25는 기존 장비의 작업범위를 넘는 진정한 현장의 게임 체인저 입니다.



볼보 전기 굴착기만의 주요특징

- 친환경 ELECTRIC 솔루션 기술 적용
- 효율적인 충전 시스템
- 검증된 유압 시스템
- 에너지 효율
- 확장된 작업 세그먼트
- 볼보 일렉트릭 머신 관리앱 EMMA

※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볼보 영업지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지사 안내 1644-1172**

Contents

2023. 01+02+03 Vol.178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조경수



홍릉수목원 소나무
(국립산림과학원)

발행인 겸 편집인 윤수근

발행처 (사)한국조경수협회

등록번호 마1743

등록일 1992년 1월 21일

발행일 2023년 3월 20일
(통권 제178호 01+02+03호)

발행 및 편집주간 류주열

제작실무 박소현, 최영두, 김슬기

디자인 및 제작 한국학술정보(주)

04	제32대 조경수 협회장 이임사		
06	제33대 조경수 협회장 취임사		
08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22	협회소식		
30	지회소식		
36	조경수 특집	철쭉 이야기	• 이노혁
44	조경수 유지관리	조경수 전정 원리와 실제	• 정규중
52	새로운 조경수	화려하고 풍성한 꽃송이 수국속 3편	• 김종근
62	조경수 기고	영양 일월산 만지송 이야기	• 이용직
68	역사 속 나무 이야기	정조는 왜 나무를 많이 심었을까?	• 신현배
72	노거수 산책	창원 북부리 팽나무	• 박정기
78	회원사 동정		
80	회비납부 안내		
81	알림	산림청 단기소득임산물 금년도 추진계획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한국조경수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203호(봉명동, 레자미[[III] 오피스텔)

TEL [042]822-5793~4 FAX [042]822-5797

E-mail klta@klta.or.kr http://www.klta.or.kr

이 임 사



사랑하는 조경수협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오늘 저는 2년간의 협회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응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 덕분에 대과 없이 임기
를 마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을 되돌아보면 임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임업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되었고,
산림 르네상스 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남성현 산림청장님과 산림청의 각별한 관심
으로 산림규제 TF를 설치하여 우리 협회 회원들이나 임업인들이 현장에서 불합리하다
고 느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했거나 관련 법규를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남성현 산림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생산자 단체로 조경수 유통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본인 임기 내 서울이나
수도권 조경시공 회원사가 우리 회원사들이 생산하는 조경수를 구입할 수 있는 유통
체계를 구축하려 하였으나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조경수 산업 활성화 및 생산
기술 발전포럼’을 늦게나마 2022년에 창녕에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포럼을 주관 해주신 윤수근 신임협회장님과 경남 중부지회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가 취임할 때 말씀드렸던 신규회원 영입 확대와 협회의 재정자립도 제고 문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취임하시는 윤수근 33대 협회장님께 무거운 짐을 넘겨 드려 죄송한 마음이나 신임
협회장님은 교직에 계시면서 오랜 기간 조경수 재배를 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탁
월한 능력과 지도력을 갖추신 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국조경수협회가 한층 더 발전
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한국조경수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과
회원분들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23.

제32대 (사)한국조경수협회장 김 규 열

취 임 사



반갑습니다!

(사)한국조경수협회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전국 각 지회에서 참석하신 대의원·조경가족 여러분과 막중한 국정 운영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 주신 남성현 산림청장님과 임업단체장님, 축하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수지회 표창과 모범농장 수상자 및 장학금 수혜자에게 축하드리며, 회원 자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를 출범시킨 새한조경 대표 유명수 고문님과 어반스케이프 김복환 회장님, 장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제2차 경제개발계획 시작 연도인 1967년 12월 5일 출범한 (사)한국조경수협회가 55년간의 국토녹화와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조경 산업에 기여하며 성장하여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 활성화와 조경수 산업 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 봉사한 역대 회장님과 회원여러분들의 노고와 지속적인 산림청의 행정 지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남성현 산림청장님은 부임이후, 규제혁신 TF운영을 통해 산림분야 현장 애로사항 227건을 수용하여 획기적으로 규제 개선하고 있음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 조경수협회의 조경수 생산 기술과 유통 및 운영체계도 시대 변화에 맞게 혁신하고 재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28년 전, 40대 초반 농업계고등학교 조경교사 시절 '나무와 조경수협회'를 만나 꿈과 희망을 키우며 조경수 재배로 심신건강과 경제자립, 행복창출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믿고 (사)한국조경수협회장의 중책을 맡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역점 사업으로

첫째,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2050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할 시대에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에 부합하는 조경수협회의 역할과 진로를 모색 하고,

둘째, 중앙회인 협회와 전국 각 지회의 유대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회원의 화비 중심에서 '나무병원 운영과 조경수 수출'등의 수익창출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지자체, 임업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상생으로 도시 숲 조성 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넷째, 금년 10월, 수원시에서 경기지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8회 조경수산업 발전 포럼의 성공적 대회를 기점으로 협회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은 자연과 멀어지면 질병과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무위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순리'이고, 공기정화기인 나무와 숲은 산소 공장이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입니다. 스위스 클라우드 연구소는 1조 그루의 나무를 더 식재해야 지구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조경산업의 무한한 잠재력과 비전이 있음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조경수협회의 57차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23.

제33대 (사)한국조경수협회장 윤 수 근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회 의 명 : 제57차 (사)한국조경수협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일 시 : 2023년 2월 23일(목)

장 소 : 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소강당

참 석 : 대의원 171명 중 참석 160명
(위임장 8명 포함) 내빈 50여명

제 1 부

◎ 개회선언 : 유연송 부회장

◎ 국민의례

◎ 모범농장 표창 : 산림청장 전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 전정귀(경남중부지회), 최기용(경기지회)
- 산림청장상 : 김정욱(울산지회)

◎ 우수지회 표창 : 김규열 회장 전수

- 최우수상 : 경기도지회 (지회장 송병수)
- 우수상 : 광주·전남서부지회 (지회장 이병관)
- 장려상 : 전북서부지회 (지회장 권일병)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수 (장학금 통장 계좌이체)

- 장학위원 : 위원장 유명수, 위원 이강대, 김규열, 유연송, 허춘일, 윤병묵, 정월봉, 권일병, 송병수
- (대학생) 유상연, 이유정, 이수연, 추동근
- (고등학생) 이영동, 송서원, 조용혁
- 어반스케이프 김복환 대표(대전·세종·충남동부지회 소속) 지정 기탁장학금
- (대학생) 여해연

◎ 제32대 회장 이임인사

◎ 제33대 회장 취임인사

◎ 협회기 전달 및 공로패 수여

◎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감사패 : 최무열 회장

- 이강대 명예회장, 김규열 제32대 회장

◎ 남성현 산림청장 인사말씀 및 정책소개

◎ 고문변호사 위촉 : 김봉균

◎ 협회장 사무명패 전달 : 창녕군 산림조합장

◎ 한국민간정원협회와의 MOU 체결

제 2 부

◎ 보고안건 : 전차 총회의사록, 2022년 감사보고, 2022년 사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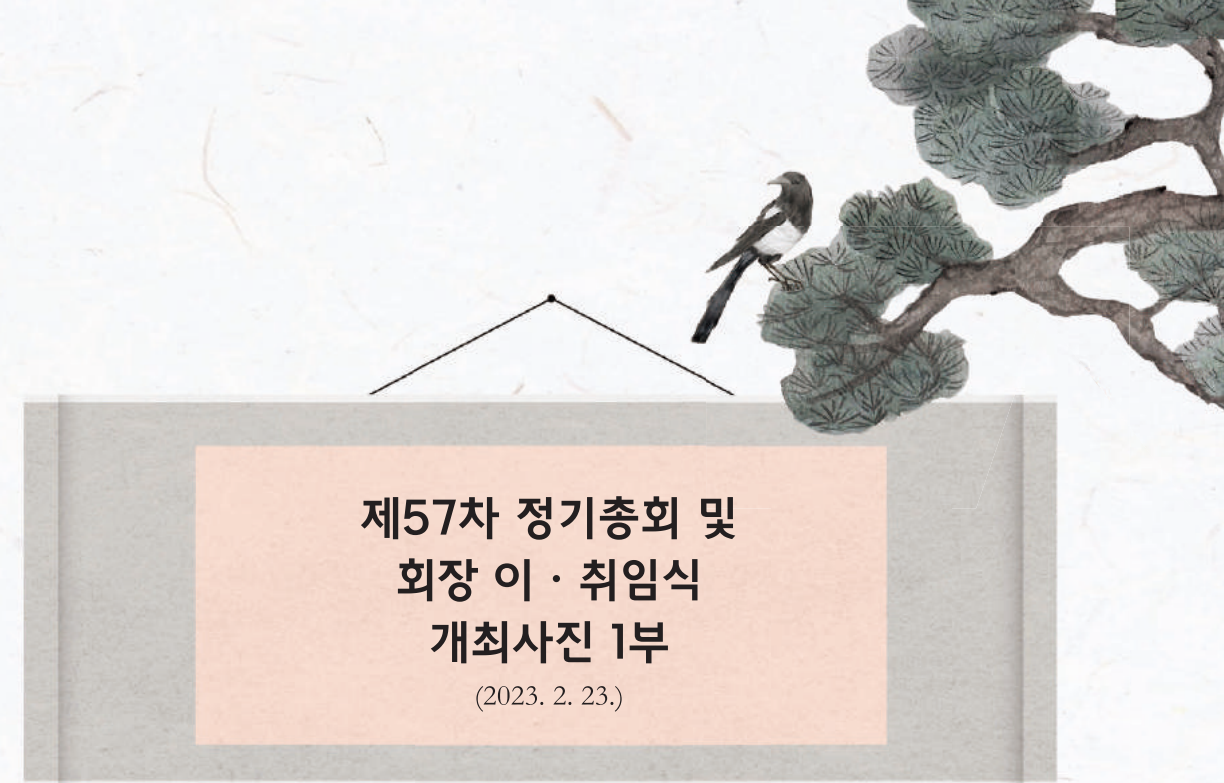
결산 : 승인

◎ 의결안건 : 2023년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이강대 고문 추대 : 승인

◎ 감사선출 : 노종식, 이근형

◎ 임원위촉식 : 위촉장, 선임장(감사) 수여

◎ 폐회선언



개회선언
유연송 (사)한국조경수협회 부회장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3. 2. 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림청장 전수
전정귀(경남중부지회) 만년교 정원 대표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3. 2. 23.)



산림청장 표창
김정욱(울산지회) 송정조경(주) 대표이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림청장 전수
최기용(경기지회) 성우조경 대표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감사패
왼쪽 이강대 명예회장, 오른쪽 김규열 제32대 회장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3. 2. 23.)



우수지회 표창 김규열 협회장
左 이병관 광주전남서부지회장(우수상), 송병수 경기지회장(최우수상), 권일병 전북서부지회장(장려상)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3. 2. 23.)



32대 김규열 회장 이임인사



장학증서 수여
(대학생) 유상연, 이유정, 이수연, 추동근, 여해연 / (고등학생) 이영동, 송서원, 조용혁



33대 윤수근 회장 취임인사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3. 2. 23.)



남성현 산림청장님 축사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3. 2. 23.)



명패 수여
김성기 창녕군 산림조합장



협회 고문변호사 위촉장 수여
김봉균 변호사



한국조경수협회와 한국민간정원협회 업무협약 체결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3. 2. 23.)



내외빈 단체사진



총회장 전경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사진 2부
(2023. 2. 23.)



감사보고



취임회장님 의사진행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사진 2부
(2023. 2. 23.)



감사 선임
이근형 감사(신임), 노종식 감사(연임)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사진 2부
(2023. 2. 23.)



위촉장 수여
지회장



위촉장 수여
부회장



위촉장 수여
이사 (이사 대표 제주지회 오태운)

NEWS

컨테이너 재배용기 공급 안내 공지

조경수 생산 및 녹화자재와 컨테이너 재배용기 공급 안내 공지

-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조경수 생산 및 녹화 자재와 컨테이너 재배용기, 상토를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사에게 공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조경자재 품목별 단가가 표시된 주문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lta.or.kr) 공지사항 란에 공지되어 있으니 주문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문서는 소속지회를 경유하여 보내주셔도 되고, 회원사에서 직접 협회사무국 (fax : 042-822-5797, e-mail : klta@klta.or.kr) 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주요품목 : 녹화마대, 녹화끝, 고무바, 반생, 조경용 고품복합비료, 코아네트, 황마씨네트, 씨거적, 컨테이너 재배용기, 컨테이너 전용상토 등

NEWS

조경수조성관리사 기출 예상문제집 발간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준비생들의 지침서로 「조경수 조성관리연구회」에서 기출 · 예상문제집을 발간하고 조경수조성관리사 에 도전하시는 수험생들의 필독서로 추천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구입가 : 35,000원
- 입금처 : (국민) 420801-01-204019 한국조경수협회
입금 후 연락 주시면 우편 배송해드립니다.
- 문 의 : (사)한국조경수협회
- T E L : 042-822-5793~4 / F A X : 042-822-5797

NEWS

2022년 자랑스러운 임업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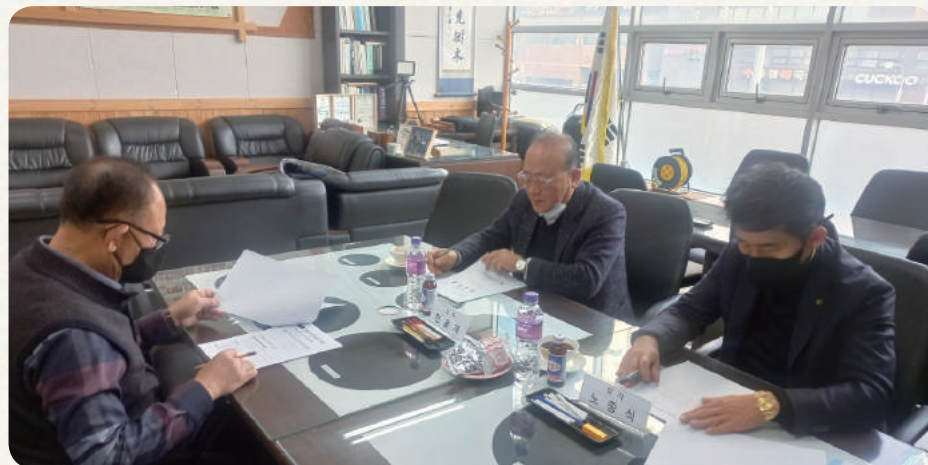
- 01. 일 시 2022년 12월 20일
- 02. 수상자 전정귀(경남중부지회) 만년교 정원 대표
- 03. 내 용 20년간 생각하는 민간정원 조성
임업후계자 활동 공로



NEWS

2022년도 하반기 감사

- 01. 일 시 2023년 1월 6일 (10:00~15:30)
- 02. 장 소 한국조경수협회 사무실
- 03. 감 사 민윤재, 노종식
- 04. 내 용 장부 및 업무서류 일체



NEWS

회장단회의 및 예산,자재 심의회 개최

- 01. 일 시 2023년 1월 17일 (10:30 ~ 13:00)
- 02. 장 소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의실
- 03. 참석자 11명 (위임장 1명 포함)
- 04. 내 용
 - 2022년 감사, 결산 보고
 - 2023년 사업계획(안) 검토
 - 2023년 예산(안) 검토
 - 2023년 자재단가 심의
 - 상근부회장 인선



NEWS

2023년 제1차 장학위원 회의

01. 일 시 2023년 2월 1일 (수) 10:00
02. 장 소 KT대전인재개발원 제2연수관 109호
03. 참석자 장학위원 9명
04. 내 용
- 2023년 장학생 접수 현황 보고
 - 2023년 장학기금 조성 현황 보고
 - 2023년 장학생 선발
 - 배재대학교 유상연
 -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유정
 - 경북대학교 산림과학 조경학부 이수연
 -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추동근
 - 동래원예고등학교 이영동
 -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송서원
 - 인천 청라고등학교 조용혁
 - 동명대학교 여해연 (어반스케이프 김복환 회장님 지정 기탁 장학금)



NEWS

2023년 제1차 이사회 개최

01. 일 시 2023년 2월 1일 (수) 10:30
02. 장 소 kt대전인재개발원 제2연수관 109호
03. 참석자 47명 (위임장 10장 포함)
04. 내 용
- | | |
|------------------|-------------------|
| 1. 보고안건 | 2. 의결안건 |
| 제1호 전차 이사회 의사록 | 제1호 2022년 결산 |
| 제2호 감사보고 | 제2호 2023년 사업계획(안) |
| 제3호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 | 제3호 2023년 예산(안) |
| | 제4호 정관 개정의 건 |
| | 제5호 기타 의결사항 |



개회선언 및 협회장 인사



감사보고



이사회 전경

NEWS

한국조경수협회 고문변호사 위촉

- 01. 일 시 2023년 2월 23일 2023년 제57차 정기총회
- 02. 장 소 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소강당
- 03. 변호사 김봉균
- 04. 임 기 2023.02.23. ~ 2025.02.28



NEWS

2023년 산림·임업계 소통간담회

- 01. 일 시 2023년 3월 3일(금) 14:00 ~ 15:30
- 02. 장 소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
- 03. 참석자 윤수근 한국조경수협회 회장 및 임업단체장(12명),
남성현 산림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박범수 농해수 비서관
- 04. 내 용 산림·임업분야 핵심 추진과제 및 건의사항
(각종 규제 개선 중심으로 진행)



NEWS

경남 중부지회 32회 정기총회

01. 일 시 2022년 12월 14일
02. 장 소 마산 거창가든
03. 참석자 지회 회원
04. 내 용
 - 재무 결산보고 및 조경포럼 정산보고
 - 주요사업계획 수립
 - 신임회장단 및 이사선출 :
신임 지회장으로 정준호 현 부회장 추대



NEWS

전북서부지회 2023년도 정기총회

01. 일 시 2023년 1월 18일
02. 장 소 조은갈비
03. 참석자 지회 회원
04. 내 용
 - 신임회장단 및 이사선출
 - 신임 지회장 권일병
 - 신임 사무국장 정지원
 - 신임 감사 정혜심



NEWS

경기지회 2022년도 정기총회

- 01. 일 시 2022년 12월 22일
- 02. 장 소 마벨리에 평촌점
- 03. 참석자 지회원 및 수원특례시 녹지경관과 직원 등 내외빈
- 04. 내 용 제8회 조경수산업 활성화 발전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토의 등



NEWS

충남서부지회 2022년 정기총회

- 01. 일 시 2022년 12월 27일
- 02. 참석자 지회 회원



NEWS

광주·전남서부지회 해외선진지 견학

- 01. 일 시 2023년 1월 29일 ~ 2월 2일
- 02. 장 소 베트남(달랏&나트랑)
- 03. 참석자 지회 회원 및 가족 62명



NEWS

광주·전남서부지회 제33회 정기총회

- 01. 일 시 2023년 2월 9일
- 02. 장 소 JS웨딩컨벤션
- 03. 참석자 지회 회원
- 04. 내 용
 - 신임 지회장 및 집행부 선출
 - 지 회 장 : 용림조경 이병관
 - 부지회장 : (주)덕호종합조경 조기철
 - 사무국장 : (주)한가람조경 류재선
 - 고 문 : 대명조경 이임삼, 금산농장 김의섭, (주)명승 구자태, (주)상록건설조경 허백현
 - 명예회장 : 화수조경 김경수
 - 감 사 : 미림농원(수목원) 박순중, (주)옥담 이근형
 - 운영위원 : (주)정원조경 최덕환, (주)들꽃세상조경산업 양화숙, 학구식물원 서필석, (주)토지조경 손성호, 벽산조경 승장호
 - 자문위원 : 담양농원 정성옥, 신신조경 박노상, 대각농원 조광훈, 움디자인 신현수, (주)스틸데코 강애란



네 번째 이야기 철쭉 이야기



이노혁

조경특급기술자

철쭉 개화모습 근경사진



국내 최고령 철쭉 노거수

지정번호: 제 2006. 5. 25

소재지: 경북 봉화 춘양 우구치 산1-1(옥돌봉아래)

수고: 5m 근원부 둘레: 105cm 수령: 550년

해발고: 1085m 관리자: 남부지방산림청

* 측정치는 지정당시임

철쭉(*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해발 1000m 이상에서 교목류가 잘 자라지 않는 능선부에 군락을 이루는 곳이 많다. 반음수인데도 저지대에서는 군락을 이룬 곳이 드물고 산철쭉보다 희귀한 편이다. 철쭉 자 가 붙은 나무는 철쭉 흰철쭉 산철쭉 흰산철쭉 만첩산철쭉 으로 5종이 있다. 철쭉이란 이름은 우리국민 85% 이상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철쭉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국민의 3%도 안 되는 것 같다. 대학의 임학과 조경학과 식물학과를 졸업한 자들도 산철쭉을 철쭉으로 부르고 있다. 각급 시군

에는 자치단체를 상징하는 나무가 1개씩 조례로 정해져 있다. 철쭉으로 정해진 곳에서도 철쭉을 심은 곳을 한곳도 보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 산철쭉이나 일본에서 도입된 자산홍을 철쭉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지역을 상징하는 나무가 철쭉 인

시군에 왜 상징하는 나무를 안 심느냐고 물으면 많이 심었다고 답변한다. 어디에 식재 했느냐고 다시 물으면 시내 도로변녹지 공원 등에 식재했다고 답변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산철쭉이나 자산홍을 철쭉으로 잘못알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영방송에서도 산철쭉 사진을 보여주면서 산철쭉 특징을 설명하면서 철쭉이라 해설 하고 있어 필자는 이의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 한 적도 있다. 각 시군에서는 4~5월에 철쭉제니 철쭉축제니 하며 광고도 하고 축제를 시행하는데 실제 자기 관내에 철쭉단지도 없는데 철쭉제를 한다는 것은 산철쭉이나 자산홍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철쭉류 축제라 하면 좋을 것 이다. 쉽게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보리쌀”이 벼과이고 “쌀” 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보리쌀”이나 보리쌀 사진을 놓고 “쌀”이라 해설하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 이라고 본다. “철쭉” 이란 나무가 없으면 몰라도 엄연히 있고 생

김새가 완전히 다른 철쭉이나 자산홍을 철쭉이라 할 수는 없다. 철쭉과 산철쭉은 한번 설명 들으면 누구나 쉽게 구분 할 수 있다.

- * 철쭉은 겨울에 잎이 진달래처럼 전부 없어지나 산철쭉은 작은 녹색잎이 붙어있다.
- * 철쭉은 진달래꽃이 질 무렵 꽃과 잎이 같이 피고, 산철쭉은 진달래꽃이 완전히 지고 철쭉꽃이 질 무렵에 묵은 녹색잎을 달고 새잎도 나오면서 꽃이 핀다.
- * 꽃 색은 철쭉이 미색에 가까운 연분홍인데, 산철쭉은 붉은자색 계통이다.
- * 철쭉은 잎 끝 모양이 도난형이고 표면에 털이 있다 없어지며, 잎 뒷면 맥 위에는 담녹색 털이 있다. 산철쭉은 잎이 피침형 또는 도피침형이고 표면과 화경에 연갈색 털이 있고 잎 뒷면 맥 주위에는 갈색 털이 밀생 한다.
- * 철쭉은 꽃봉오리에 끈적거리는 액이 없는데, 산철쭉은 꽃 봉오리와 잎 기부에 끈적거리는 액이 많고, 화관내부에 짙은 보라색 반점이 많다.
- * 독립수인 경우 철쭉의 생장성은 직립형인데, 산철쭉은 원정형 편이다.
- * 철쭉은 햇가지가 진달래보다 굵은데, 산철쭉은 보다 가늘다.

철쭉 산철쭉 진달래 차이점 비교



진달래

꽃피는모습 비교



철쭉	산철쭉	진달래
꽃과 잎이 같이 핀다 화관안의기부는연두색이다	잎이있다.화관내부에자색점 많음 꽃잎전체가 같은색이다	잎이 전혀 없다 꽃잎전체가 같은색이다

잎모양및 털유무 비교



표면에 털있다가 곧 없어짐	앞 표면에 털, 맥위에는 밀생	표면에 인편약간 뒷면에 많음
----------------	------------------	-----------------

철쭉 이름의 유래와 다르게 부르던 이름

“철쭉”이란 이름은 중국 한자의 이름 척족(躑躅)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우리말로는 척(躑)은 머뭇거릴 척 또는 철쭉꽃 척 이라 읽으며, 족(躅)은 자취 족 또는 철쭉꽃 족 이라 읽는다.

척촉이 중국식 발음으로는“명문신옥편”에 “찌쭈”로 되어 있고, 네이버 사전에는 “쯔쭈”로 발음한다고 되어있다. 일본에서는 츠츠지 라고 하는 것 같다. 우리 고전 해동역사에도 철쭈를 척촉 또는 양척촉(羊躑躅)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워 가든 길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된 전설을 소개하면 옛날 신라 성덕왕 때 강릉 태수로 부임하던 순정공을 따라 동행하던 수로부인은 인물이 절세미인인데 꽃을 무척 좋아하는 여인이었다 한다. 길을 가던 도중 그 일행이 바닷가에서 쉬게 되었는데 바로 그 주위에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 쌓여있고 그 높은 절벽 위에 한참 피어 있는 철쭈꽃(당시 꽃 이름 미상)을 보게 되었다. 이 꽃을 본 수로부인은 시중들을 보고 누가 저 꽃을 꺾어 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으나 암 절벽이라 무서워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한다. 마침 소를 몰고 옆을 지나가던 촌로가 해 보겠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조심조심 올라가 그 꽃을 꺾어다 수로부인에게 주었더니 그 부인은 감탄하였다 한다.

철쭈이란 이름은 1937년 조선식물향명집이 발표되기 전에는 지방 바다 이름이 다르고 같은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로 불러 졌다. 철쭈의 다른 이름으로는

척촉(躑躅) : 중국에서 전래된 이름으로 꽃이 너무 아름다워 가든 길도 구경하느라 멈추게 한다(머뭇거릴 척, 머뭇거릴 촉)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양척쭈(羊躑躅):철쭈의 꽃봉오리가 양의 젖꼭지인줄 알고 양이 빨려다 머뭇거린다 하여 양척촉 이라고 하였다 한다.

철쭈나무: 철쭈이 초본이 아니고 목본 즉 나무라는 뜻을 내포 한 것이다. 1977년 건설부 발행 “조경용소재도감”에는 철쭈나무로 되어있다.

철쭈꽃: 2007년 국가표준식물목록 이 발표되기 전에는 모든 식물도감에 철쭈꽃 또는 철쭈나무로 표기되어 있다가 철쭈으로 변경된 것이다.

개꽃나무: 진달래 와 참꽃나무 꽃은 철쭈꽃과 매우 유사한데 진달래 꽃 과 참꽃나무 꽃은 사람이 먹을 수 있으나 철쭈꽃은 독이 있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개자를 붙여 개꽃나무라 한 것이다.

참철쭈: 철쭈나무 잎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자생하는 참꽃나무 잎과 매우 유사하여 참철쭈이라 한 것 같다.

참철쭈나무: 철쭈이 목본이기 때문에 참철쭈에 나무 자를 붙여 부른 것 같다.

물철쭈: 산철쭈이 산기슭이나 물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물철쭈 이라 불렀지만 산 중턱 이상에 주로 분포되어있는 철쭈를 물철쭈 이라 부르게 된 것은 식물명이 표준화가 안 되었기 때문 일 것이다.

연달래: 철쭈 은 진달래와 매우 유사한데 진달래꽃이 질 무렵 연달아 피기 때문에 연달래라 부르게 된 것 같다.

철쭈의 생태적 특성

철쭈는 내한성이 아주 강하여 우리나라 전역의 해발 1000m 이상에서도 군락을 많이 이루고 있으며, 내염성과 바람에 강하여 해안가나 추운 지역에서도 식재가 가능하다. 이식력 맹아력 공해에 약하여 식재를 잘 하지 않는 데다가 양묘법이 까다로워 묘목을 생산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쭈는 어릴 때 생장이 느리고 음수이나 3년 정도 자라면 중용수로 변하며 토양은 습기와 양분이 좀 있고 배수가 잘되는 곳이면 어느 토질에서나 잘 적응 한다.

철쭈의 용도

철쭈는 주로 조경용으로 매우 좋은 수종인데 이식력 맹아력 공해에 약한 것이 단점이고 재배하는 자가 없어 공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꽃 색은 아주 연한 분홍색이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고상하게 보이는 수종이다. 식재지역으로는 교통 공해가 적은 공원 정원 도로변 녹지가 좋을 것으로 본다. 철쭈는 맹아력이 약하고 개화기간이 짧고 열매나 수형의 관상가치가 적어 분재 소재로는 안 좋은 것 같다. 옛날 의약이 발달하기 전에는 잎과 꽃으로 건위제 이뇨제 강장제로 사용 했다.

철쭉의 번식법

철쭉의 번식은 **실생묘법**, **삽목법**, **분주법**이 있다고는 하나 삽목법은 발근율이 나쁘고 분주법은 근부의 분얼(分蘖)이 매우 약하여 효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실생묘법이 비교적 용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

종자를 10월경에 채취하여 음건해서 11월에 파종하든가 건조저장 하였다가 다음해 봄에 파종하면 되는데 반드시 **비닐하우스와 같은 온실**에서 파종 하는 것이 좋다. 종자가 쌀 눈 만큼 작아서 파종시 두껍게 덮으면 발아력이 약하여 발아가 잘 안되고, 얇게 덮으면 건조하여 역시 발아가 잘 안 되므로 노지파종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 파종 하여야 하는데 파종상 표면에는 수태(이끼식물)를 채취하여 삶아서 사멸시킨 후 완전히 건조 시키고 부수어(파쇄) 파종상 표면에 0.5~0.7cm 두께로 골고루 펴 친후 그 위에 종자를 골고루 산포하고 조로 같은 것으로 물을 충분히 주면 종자가 수태 사이로 스며들거나 수태가루에 접착하게 되어 습도를 유지할 수 있다. 물을 너무 많이 주어도 안 되고 건조하게 해서도 안 된다. 발아 초기까지는 하루에 2~3회 분무기로 살짝 적셔주는 것이 좋으며 종자가 발아 하여 4~5cm 자라면 너무 밀생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솟음하여 주어야 한다. 높이 10cm 정도 자라면 노지 이식이나 포트에 이식하는 것이 좋다. 노지 이식이나 포트 이식 후의 육묘관리는 일반 묘목관리와 같다.



전북 무주군 덕유산 중봉 철쭉단지 (연분홍은철쭉, 보라색은 산철쭉임)

* 철쭉 참고자료 수집시 주의사항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철쭉과 산철쭉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 백과사전이나 일부 책자, 인터넷등을 검색하면 학명은 철쭉이 맞는데 사진은 산철쭉을 표시 하거나 해설하는 곳이 많으며, 심지어는 중앙 국영방송사에서도 산철쭉 사진을 보여주면서 철쭉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으니 이 분야를 필히 알아야 할 사람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참고: 철쭉=躑躅 의 시대별 명칭 변화

현재의 철쭉이 시대별 문헌에 나타난 변화를 대략 보면 16세기-떡툭, 17세기-떡툭 터툭 떡툭, 18세기-척축, 19세기-철죽 철죽 철쭉나무 로 변하고 21세기에는 국가식물목록위원회에서 철쭉꽃 철쭉나무를 철쭉으로 변경 하였다. 🌿



조경수 유지관리 조경수 전정 원리와 실제



정규중
나무의사

(주)장안 환경생태연구소 소장
신구대학교 겸임교수

수목의 전정은 수목의 생장을 조절하여 수목의 건강뿐 아니라 경관을 향상시키고 결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전정에서 중요한 점은 전정 이후 생장의 방향이며, 상처의 치유이다.

자가영양체autotroph인 수목은 광합성을 위한 물과 양분의 흡수를 담당하고 있는 뿌리부분과 광합성을 하는 엽량이 균형(T/R율)을 이루고 있다. 전정은 이러한 균형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어 수목의 생장의 변화를 가져 온다.

또한 수목의 목질부를 감싸고 있는 형성층이 제거되어 목질부가 노출됨으로써 곰팡이fungi와 세균bacteria의 침입을 용이하게 한다. 전정방법은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목의 상처에 대한 방어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목은 낙엽이 발생할 경우, 이층absciss layer을 형성하고 상처부위에 목전질suberin을 생성하여 균의 침입을 막고 잎자루를 떨어뜨린다.

또한 줄기 아래쪽에 위치한 가지는 햇빛을 받지 못해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양분의 부족으로 고사하게 되는데 고사한 나뭇가지는 썩어 들어가다 일정구간에서 진전을 멈추게 된다. 이 지점이 방어기작이 작동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Alex L. Shigo(1984)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목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작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NTPNatural Target Pruning 이론으로 정립하였다.



잎자루에 이층형성 후 낙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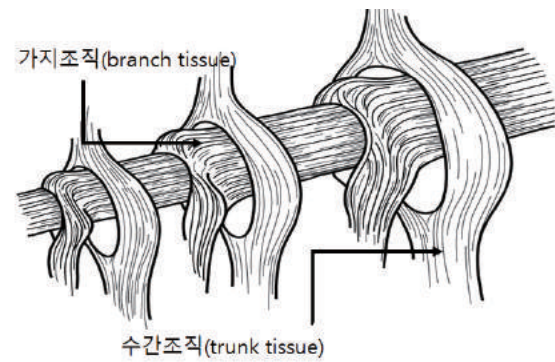


잎자루에 이층형성 후 낙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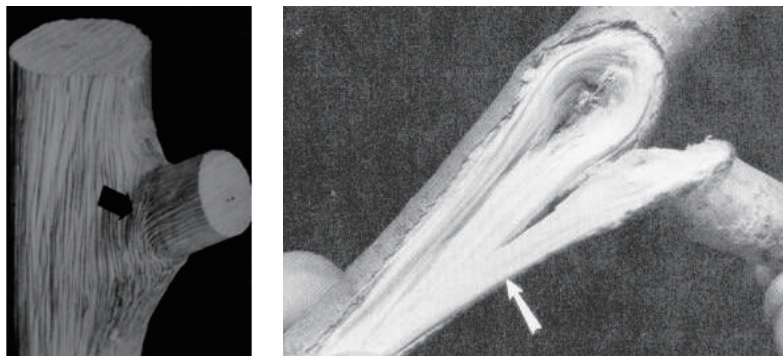
NTP는 수목 스스로 고사된 가지를 제거하는 자연낙지(自然落枝)의 개념을 전정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NTP는 수목의 방어기작과 그 방어기작이 작동하는 부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간조직과 가지조직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수목은 주광성을 가지고 위로 자라게 되는데 기다란 섬유소로 되어 있어 방향성을 나타내게 된다. 우선 수간조직은 지면에서부터 수직형태로 자라게 되고 가지조직은 가지가 뻗는 곳을 향하여 기다란 섬유소가 자라게 된다. 이에 줄기와 가지는 서로 겹치는 부위가 생겨 성장방향이 교차된다. 그 구조가 아래 그림과 같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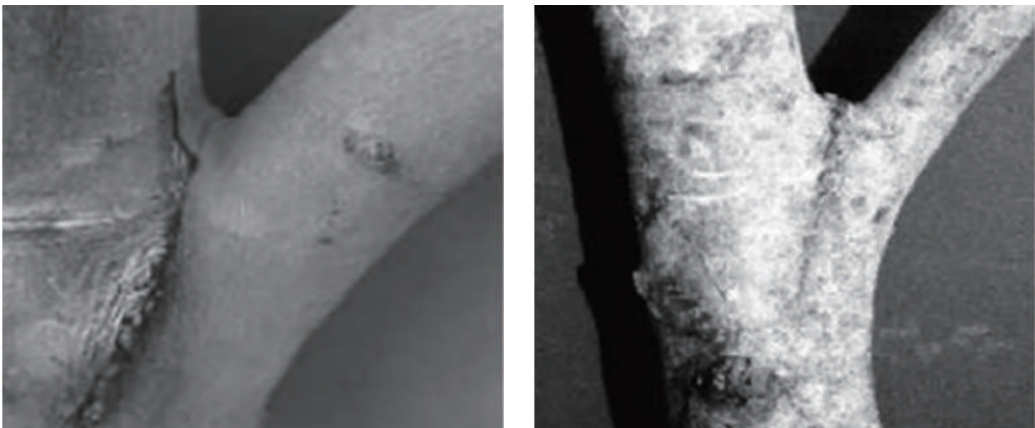


수간조직과 가지조직의 방향



지륵의 생성원인

둘째, 수목은 2차생장을 함으로 춘재, 추재를 생성하면서 부피생장을 한다. 부피생장을 하면서 수간조직과 가지조직이 교차되는 지점에 저항이 생기거나 수피조직이 끼들어갈 경우, 수피가 융기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지피융기선 I

지피융기선 II

셋째, 수목은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형상인데 가지에 병해충의 피해를 받게 되면 가지를 통해 줄기까지 병의 진전이 발생하게 된다. 줄기로 침입한 병해충은 결국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쇠약하게 만들게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물질이 줄기와 가지가 연결되는 통로에 축적하게 된다.



가지보호대

상처치유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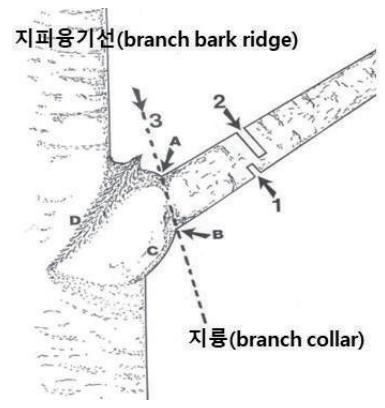
이러한 3가지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륵, 지피융기선, 가지보호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선 지륵branch collar은 가지조직branch tissue과 수간조직trunk tissue이 겹치는 부분으로 섬유조직이 겹치면서 볼록하게 나타난 지점이다.

지피용기선(Branch Bark Ridge)은 줄기와 가지의 부피생장으로 인해 형성한 수피부가 줄기와 가지사이에서 묻혀 융기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지피용기선과 지륜의 끝부분을 잇는 가지의 기부 안쪽에 형성되어 있는 가지보호대는 유세포에 의해 만들어진 전분 및 기름 등 화학물질로 채워져 있어 가지로부터 진전되는 부후균 등을 수간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축적되는 방어물질은 수목에 따라 다르며 활엽수는 페놀(phenol)계 물질을 침엽수는 테르펜(terpene)계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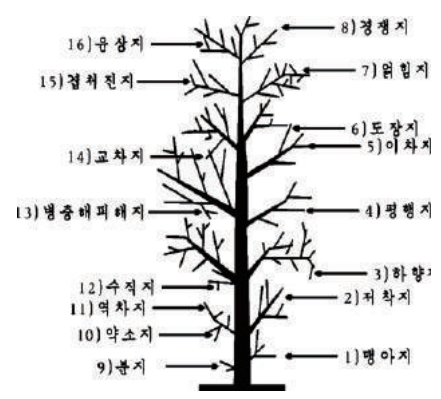
이제 전정을 실시해 보자. 전정은 지피용기선과 지륜을 잇는 선을 기준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할 때에는 가지보호대를 건들지 말아야 하며 수간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상처의 병원균의 침입을 막고, 형성층에서 캘로스(callus)물질을 분비하여 유합조직을 만들게 된다.

결국 NTP는 수목의 방어기작인 가지보호대와 형성층의 작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표적전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전정에 대한 실제 요령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수목을 건강하게 재배하기 위한 전정은 광합성을 가장 우선시하여야 한다. 광합성을 최대화하고 세포호흡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정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수목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수간에 달린 가지의 일정한 각도 유지, 수간아래에 달린 하지 제거, 수관 안쪽으로 향하는 내향지의 제거, 위 아래로 겹친 가지의 제거, 병해충에 의한 피해지의 제거, 고사지의 제거, 도장지의 제거 등이다. 특히, 양수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큰 가지 전정



작은 가지 전정

그러기 위해서는 굵은 가지도 제거해야하고 잔가지도 제거해야 한다. 전정은 궁극적으로 수목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정 자체는 수목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앞서 NTP이론을 바탕으로 굵은가지를 전정했을 때 상처부위의 치유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지만 잘린 단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형성층과의 거리가 멀어 방어기작이 발생하기 어렵고 심재와 변재의 죽은 세포는 병원균의 침입이 수월하다. 따라서 전정은 병원균이 많은 여름철을 피해야 하고 또한 겨울철에 전정으로 인해 동해에 약한 형성층이 외부로 드러나서도 안되며 상처부위는 수목이 성장할 시기에 맞추어야 상처가 치유가 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수목의 굵은가지 전정이 휴면기가 끝나는 시점에 해야 한다. 전정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되면 형성층이 동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여름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병원균의 증식이 빠르기 때문이다.



낙엽수의 전정시기



상록수의 전정시기

잔가지 전정의 경우에는 잘린 단면적이 좁아 유합조직이 빠른 시간 내에 상처부위를 덮을 수 있으며 형성층이 병원균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어느 계절이든 시행할 수 있다. 단지, 병원균이 번성할 수 있는 고온다습한 여름을 제외하고 말이다.

전정시 절단 유형을 보면 남겨지는 가지가 제거되는 가지의 직경보다 크게 작업을 하는 제거절단, 길이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굵은 가지를 자르는 축소절단, 마디사이를 제거하는 두목을 들 수 있다. 제거절단은 앞서 NTP이론을 적용하고 축소절단은 분지되는 지점에서 굵은 가지를 제거한다. 그러나 두목전정은 자연표적전정이 아님으로 1, 2년 가지는 수

형유지를 위해 활용 가능하나 3년생이상의 가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전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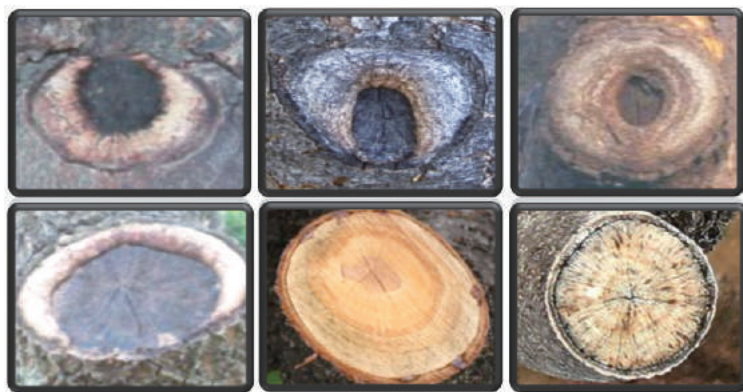
제거절단

축소절단

두목절단

수목의 상처는 조기에 치유되지 않는다. 특히 수목이 광합성은 유합조직을 만드는데 사용되는데 호흡량이 많을 경우에는 양분의 부족으로 상처치유가 잘 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전정의 원리를 감안하여 절단하지 않으면 이 또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며, 동해로 인해 형성층이 죽어 들뜬 수피가 형성되거나 과습과 빗물에 의해 병원균이 증식하여 형성층을 파괴하여 유합조직의 생성을 막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무의 상처가 깊게 남게 되고 목질부로 침투한 수목은 안쪽을 부후하게 하여 수목의 구조적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전정은 수목을 살리는 기법이기도 하지만 수목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수목 전정후 유합조직의 생성

이제 주위를 둘러보자. 조경수 생산에 있어서는 조기에 새가지 또는 눈(bud)을 제거함에 따라 전정으로 인한 수목의 가치 훼손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가로수의 전정을 살펴보면 두목전정으로 인해 가로수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으로 병·충해 피해를 보았거나 쇠약한 가지 등을 가지치기 대상으로 규정할 뿐, 어떻게 얼마만큼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 현장에서 가지를 칠 때 쓰는 강전정, 약전정 등의 용어는 ‘한국표준품셈’에 등장한다. 표준품셈이 중요한 이유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가지치기 ‘공사’를 발주할 때 비용 산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며 민간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둘째, 일부 지자체는 예산 문제 탓에 전깃줄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로수 관리보다는 전깃줄 관리가 더 고려될 수밖에 없고, 공사비 책정도 ‘전기 부문 표준품셈’을 따르다 보니 30% 정도 낮게 책정된다.

셋째, 민원 역시 과도한 가지치기의 원인이다.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가로수 관련 민원을 보면 ‘나무(혹은 나뭇가지)를 잘라 달라’는 민원이 94%에 달했고, ‘자르지 말라’는 민원은 6%에 불과하다. “간판, 표지판, 햇볕을 가린다”는 민원부터 “열매에서 악취가 난다”, “걷는 데 방해가 된다”는 민원까지 가로수를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 애써 가꿔놓은 가로수가 그 생명을 다하고 있다. 🌳



가로수의 두목전정 사례

화려하고 풍성한 꽃송이

수국속 세 번째 이야기
Genus *Hydrangea*



김종근

글/사진: 플러스가든 대표 김종근
Homepage : www.plusgarden.com



수국 '아베 마리아'

Hydrangea macrophylla 'Ave Maria'



Hydrangea macrophylla 'Ave Maria'
수국 '아베 마리아'

앞이 지는 작은키나무로 단정하고 작게 자라는 품종이다. 꽃은 6-9월경 처음에는 녹색이지만 점점 순백색으로 벌어지는데 꽃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발달한다. 다소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이 지고 나면 묵은 꽃대나 오래된 가지를 잘라주면 된다. 작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웨딩가든과 같은 화이트를 테마로 하는 공간에 적용하면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아예샤'

Hydrangea macrophylla 'Ayesha'

키와 폭이 각각 약 2m까지 자라는 작은키나무이다. 광택이 있는 넓은 달걀모양의 잎 가장



Hydrangea macrophylla 'Ayesha'
수국 '아예샤'



수국 '아예샤'

자리에는 톱니가 발달한다. 특히 여름철 등글게 말리는 컵모양의 작은 무성화들이 뽀뽀하게 모여 둥근 모양을 이루는 꽃차례가 매력적이다. 이때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조각은 보통 3-4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두껍다. 꽃은 보통 분홍색으로 피는데 산성토양에서는 파란색을 띠기도 한다. 특히 염분에 강해서 바닷가 주변의 정원에 심으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수국 '실버 슬리퍼'(*H. macrophylla* 'Silver Slipper')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기도 하는데 같은 품종이다.

수국 '벨기카'
Hydrangea macrophylla 'Belgica'



Hydrangea macrophylla 'Belgica'
수국 '벨기카'

잎이 지는 작은키나무로 6-9월경 둥글게 모여 피는 무성화가 매력적인데 꽃의 색깔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 토양 유무에 따라 파란색에서 분홍색을 띠기도 한다. 커다란 꽃받침 조각의 가장자리에는 잔잔한 톱니가 있거나 밋밋하다. 꽃송이가 풍성하여 가을철이나 겨울철 꽃대를 잘라서 실내 장식용 드라이플라워로 활용해도 좋다.

수국 '베네룩스'
Hydrangea macrophylla 'Benelux'

전체적으로 둥근 수형을 가진 작은키나무로 키와 폭이 약 1-1.5m까지 자란다. 이 품종 역시 사진에 소개된 꽃송이의 색깔은 파란색을 띠지만 식재지의 토양 pH에 따라 파란색에서 분



Hydrangea macrophylla 'Benelux'
수국 '베네룩스'

홍색까지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꽃받침 조각은 보통 4장으로 구성되는데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수국 '비송'
Hydrangea macrophylla 'Bichon'



Hydrangea macrophylla 'Bichon'
수국 '비송'

작고 단정하게 자라는 품종으로 약 1.5m까지 자라며 여름철 하얀색으로 피는 꽃이 매력

적이다. 보통 4장의 꽃받침 조각으로 이루어진 다른 품종들과 달리 안쪽에 작은 조각들이 더 붙기도 한다. 흰색을 테마로 하는 웨딩가든이나 화이트가든에 식재하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1964년 프랑스 뒤블랑셰(Dublanchet)에서 육종되었다.

수국 '블라우어 프린스'
Hydrangea macrophylla 'Blauer Prinz'



Hydrangea macrophylla 'Blauer Prinz'
수국 '블라우어 프린스'

단정하게 자라는 작은키나무로 둥글게 모여 피는 꽃은 주로 파란색을 띠는데 간혹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자주색 또는 빨간색으로 피기도 한다. 사진상의 모습은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꽃의 색깔별로 선호도가 다르다면 황이나 석회 등을 첨가하여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첫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잎은 싱싱하게 전체 모양을 잡아준다.

1925년 독일 마테스(F. Matthes)에 의해 육종되었다.

수국 '마리에시 페르펙타'
Hydrangea macrophylla 'Mariesii Perfecta' = Blue Wave



Hydrangea macrophylla 'Mariesii Perfecta'
수국 '마리에시 페르펙타'

약 1.5-2m까지 자라는 작은키나무로 바닷가나 바람이 많이 부는 공간에서도 잘 자란다. 여름철 약 2개월에 걸쳐 분홍색 또는 파란색으로 풍성하게 피는 꽃이 매력적인 레이스캡 품종이다. 꽃차례의 안쪽은 자잘한 유성화, 바깥쪽은 꽃받침 조각이 큰 무성화로 둘러싸여 있다. 이 품종은 1904년 빅터 르무안(Victor Lemoine)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어 Blue Wave(블루 웨이브)라는 상표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수국 '브루넷'
Hydrangea macrophylla 'Brunette'



Hydrangea macrophylla 'Brunette'
수국 '브루넷'

여름철 아주 짙은 자주빛 빨간색으로 피는 꽃이 매력적으로 정원에서 강렬한 효과를 연출하기 적합한 품종이다. 1939년 프랑스의 헨리 카유(Henri Cayeux)에 의해 육종되었다.

수국 '엔지안돔'
Hydrangea macrophylla 'Enziandom'



Hydrangea macrophylla 'Enziandom'
수국 '엔지안돔'

키와 폭이 약 1.5m까지 단정하게 자라는 작은키나무이다. 이 품종 역시 풍성하게 피는 꽃이 매력적인데 토양의 산도에 따라 짙은 파란색 또는 선명한 분홍색을 띤다. 뽕뽕하게 달리는 꽃받침 조각의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꽃송이는 약 25cm 지름에 높이는 12cm 정도까지 자란다. 잎은 진녹색의 넓은 달걀모양으로 가을에 적갈색으로 변하는데 오후 뜨거운 햇살에도 잘 견디는 편이다. 1950년 독일의 아우구스트 슈타이거(August Steiniger)에 의해 육종되었으며, 수국 '젠티안 돔'(*H. macrophylla* 'Gentian Dome')과 같은 품종이다.

수국 '에버블루밍'
Hydrangea macrophylla 'Everblooming'



Hydrangea macrophylla 'Everblooming'
수국 '에버블루밍'

약 1.5m까지 자라는 작은키나무로 여름철 파란색으로 풍성하게 피는 꽃송이가 매력적이



수국 '에버블루밍'

다. 품종명은 오랫동안 꽃이 핀다는 의미로 꽃이 지고도 마치 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꽃의 색상이 예쁠 때 말리면 오랫동안 드라이플라워로 실내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수국 '하나비'
Hydrangea macrophylla 'Hanabi' = Fireworks



Hydrangea macrophylla 'Hanabi'
수국 '하나비'

약 1-1.5m까지 단정하게 자라는 작은키나무로 일본에서 선발 육종되었다. 여름철 별모양의 작은 겹꽃이 레이스캡 모양으로 모여 피

는데 꽃의 색깔은 토양 산도에 따라 흰색, 분홍색 또는 파란색을 띠기도 한다. 광택이 있는 짙은 녹색 잎은 길이 약 20cm 정도 되는데 가장자리에 거친 톱니가 발달한다. 간혹 수국 Fireworks(파이어웍스), Fireworks White(파이어웍스 화이트)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기도 하지만 같은 품종이다.

수국 '피셔스 실버블라우'
Hydrangea macrophylla 'Fischers Silberblau'



Hydrangea macrophylla 'Fischers Silberblau'
수국 '피셔스 실버블라우'

약 1.5m까지 단정하게 자라는 품종으로 여름철 피는 파스텔톤의 분홍색 꽃이 매력적이다. 서늘하면서 약간 그늘진 공간에 심으면 더 잘 자란다. 하나 또는 몇 그루 정도씩 소규모 단위로 심어도 좋지만 교목층 아래 대규모 군락으로 심어도 넓은 경관의 임팩트를 높일 수 있다.

수국 '플랑부아'
Hydrangea macrophylla 'Flamboyant'



Hydrangea macrophylla 'Flamboyant'
수국 '플랑부아'

약 1.5m까지 단정하게 자라는 품종으로 여름철 진자주빛 분홍색으로 피는 꽃이 매력적이다. 무성화의 가장자리에는 큰 톱니가 불규칙하게 발달하며 다소 그늘지면서 서늘한 곳에 심으면 더 잘 자란다.

수국 '프라우 미카코'
Hydrangea macrophylla 'Frau Mikako'

약 0.9-1.2m까지 단정하게 자라는 작은키나무로 여름철 분홍색으로 피는 꽃이 매력적이다. 흰색의 꽃 가장자리에 분홍색 또는 보라색 무늬가 발달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다른 수국류보다 강한 햇살에는 다소 약하므로 서늘한 반그늘 지역에 심고 보습을 위해 나무껍질이나 낙엽등으로 멀칭하는 것이 좋다. 추위에



Hydrangea macrophylla 'Frau Mikako'
수국 '프라우 미카코'

는 다소 약하여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서는 노지에서 월동이 어려울 수 있지만 겨울철 차가운 북서풍을 막고 짙 등으로 별도의 월동처리를 하면 가능하다.

수국 '프릴리베트'
Hydrangea macrophylla 'Frillibet'



Hydrangea macrophylla 'Frillibet'
수국 '프릴리베트'

여름부터 가을까지 무성화들이 둥글게 모

여 피는 모습이 매력적인데 꽃의 색깔은 토양 산도에 따라 중성에서는 분홍색, 강산성에서는 청자색을 띤다. 이 품종은 강한 햇살에 몸살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후시간대에 그늘이 다소 지면서 서늘한 장소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

수국 '제너럴 패튼'
Hydrangea macrophylla 'General Patton'



Hydrangea macrophylla 'General Patton'
수국 '제너럴 패튼'

약 1m까지 아주 단정하고 조밀하게 자라는 작은키나무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풍성하게 피는 꽃이 매력적이다. 이 품종 역시 토양의 산도에 따라 파란색에서 장밋빛 빨간색까지 다양하게 나오지만 다른 품종들에 비해 산성토양에서도 붉은색을 더 유지하는 경향이 많으며 약산성에서는 보랏빛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실외 화단에 심어도 좋지만 작고 단정하기

때문에 화분에 심어 가꾸어도 좋다. 품종명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 패튼 장군의 이름에서 기인된 것으로 알려진다.

수국 '제네랄 비콤테스 드 비브헤'
Hydrangea macrophylla 'Générale Vicomtesse de Vibraye'



Hydrangea macrophylla 'Générale Vicomtesse de Vibraye'
'제네랄 비콤테스 드 비브헤'



수국 '제네랄 비콤테스 드 비브헤'

약 1.8m까지 자라는 작은키나무로 달걀모양의 넓은 잎을 가지고 있다. 이 품종 역시 토양의 산도에 따라 연분홍색에서 파란색까지 꽃의 색깔이 다양하게 변한다. 약간 그늘지면서 서



수국 '제네랄 비콤테스 드 비브헤' 🌿

늘한 곳에서 잘 자라며 풍성하게 핀 꽃은 겨울 전에 잘라서 드라이플라워로 장식해도 좋다.

수국 '게르다 슈타이니거'
Hydrangea macrophylla 'Gerda Steiniger'



Hydrangea macrophylla 'Gerda Steiniger'
수국 '게르다 슈타이니거'

약 1.5m까지 단정하게 자라는 품종으로 잎은 광택이 있으며 진녹색을 띤다. 여름철 무성화들이 모여 커다란 꽃송이를 이루는데 토양 산도에 따라 파란색에서 분홍색까지 나

타난다. 1946년 독일의 아우구스트 슈타이거 (August Steiniger)에 의해 육종되었다.

수국 '글로잉 엠버스'
Hydrangea macrophylla 'Glowing Embers'



Hydrangea macrophylla 'Glowing Embers'
수국 '글로잉 엠버스'



수국 '글로잉 엠버스'

약 0.9-1.5m까지 자라는 품종으로 여름철 무성화들이 모여 지름 약 20cm의 크고 둥근 꽃송이를 이루는 모습이 매력적이다. 무성화들은 보통 연두색으로 피기 시작하여 분홍에서 빨간색으로 변한다.

수국 '골리앗'
Hydrangea macrophylla 'Goliath'



Hydrangea macrophylla 'Goliath'
수국 '골리앗'



수국 '골리앗'

유럽에서 인기가 좋은 품종으로 여름철 연분홍 또는 자줏빛이 도는 파란색의 커다란 꽃이 매력적이다. 꽃 한송이가 하나의 꽃다발을 만들 정도로 크게 자라기 때문에 드라이플라워로 이용해도 좋다. 1923년 독일의 마테스(F. Matthes)에 의해 육종되었다. 🌿

참고문헌

국가표준식물목록 <http://www.nature.go.kr/kpni/>
송기훈, 권용진, 김종근, 원창오, 이정관(2018) 한국 정원식물A-Z. 디자인포스트
플러스가든 <http://www.plusgarden.com>
Alan Toogood(1999) RHS Propagating Plants. DK.
Glyn Church(1999) Hydrangeas. David Bateman.
Michael A. Dirr.(1997) Dirr's Hardy Trees and Shrubs. Timber Press.
RHS Plant Finder <https://www.rhs.org.uk/plants>
Hillier(1995) The Hillier Gardener's Guide to Trees & Shrubs. David & Charles.
Liberty Hyde Bailey(1976) Hortus Third - A Concise Dictionary of Plants Cultiv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cmillan.
RHS(1996) A-Z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DK.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1999) The New Royal Horticultural Society Dictionary of Gardening. Macmillan.

영양 일월산 만지송 이야기



이용직

自號 빈수레

시인, 소설가. 2011년 《산림문학산林文學》신인상 소설 · 2011년 《창조문예》신인상 시 등단
장편소설 『벌떡 숲에 부는 바람』(2012년), 『그 숲에 살다』(2014), 『역새비람의 전설』(2017),
시집 『들소리 바람소리』(2011), 수필집 『산, 그리고 인간과의 만남』, 『슬숨은 그 자리에』(2012)
동화집 『산불소방관』(2003), 『숲장 할아버지와 자작나무 친구들』(2019),
수상 2014년 제3회 녹색문학상,
2019년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주관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 당선작 선정.



천연기념물 제399호로 지정된 영양군 답곡리 만지송은, 영양군 석보면 소재지에서 영덕 방면 지방 도로변 야산에 있다. 만지송은 수령이 400년으로 추정되는 반송으로서 일반 소나무의 변종으로 보인다. 나무의 높이는 12m, 수관 폭은 13~16m이다. 지상 60cm 근처에서 4개의 큰 줄기로 갈라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셀 수도 없이 많은 가지로 벌어져 만지송이라 이름하고, 전체적인 수형은 큰 우산을 펼친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소나무 주위에서 자라는 다른 소나무들은 우리나라 야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복솔이거나 제멋대로 자란 비루먹은 소나무인데 유별나게 이 소나무만 반송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주위에서 자라는 다른 소나무를 닮지 않고 반송 특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 근원이 궁금해지기도 한다.



국내에는 무주군 설천면의 반송 등 여러 그루의 반송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답곡리 반송처럼 반송 고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경우는 드물다.

소나무의 피해 상황을 정밀 진단한 결과 지제부에 생긴 상처가 외연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죽은 가지 등이 방치되어 광합성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수관 부위에는 진딧물과 응애 등이 대량 발생 되어 있었다. 과도하게 발달한 수관의 가지는 바람이나 폭설에 절개될 우려가 있었고, 일부 줄기에는 딱따구리가 구멍을 파서 둥지를 틀고 있었다. 소나무 생장에 유리한 토양조건은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아야 함에도 식양토로 구성되어 뿌리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피해의 원인과 진단을 근거로 관리 작업에 착수했다. 복잡한 수관부 가지는 가지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통기를 원활히 하고 광합성작용을 증진시켰다.

소나무 생장에 불리한 식양토에 사토와 생석회를 혼합 처리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딱따구리가 뚫어 놓은 구멍은 외과수술로 처리하여 부패의 확산을 방지하였다. 만지송은 사람의 발길이 뜸한 산지에 위치하여 인위적인 간섭을 적게 받은 대신 불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 수세가 매우 쇠약하였다. 기타 수세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수간주사 하고 응애와 진딧물을 퇴치하는 약제를 살포하는 등 병충해를 구제하였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병충해 방제와 영양제 투여 등으로 쇠약한 수세가 일시에 회복되지는 않는다.



자연은 자연의 순리대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람의 적절한 간섭과 처방이 수반되어야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양군은 경상북도 북단에 위치한 오지이다. 영양군의 진산 일월산은 1219m 높이를 자랑하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명산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영양군을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도 하고 육지 속의 섬이라고도 한다. 영양군은 군청 소재지인 영양읍을 비롯한 5개 읍면 1개 출장소 74개 자연부락이고 인구수는 2만 명이 채 안 된다. 1973년 통계상 7만여 명이었던 주민이 급전직하로 줄어든 것은 나라 산업이 농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영양군은 울릉군, 옹진군 다음으로 인구수가 적은 군으로서 군청 소재지에 신호등이 한 곳밖에 없는 평화로운 지역이기도 하다.

영양군과 연결하고 있는 청송군 역시 군 단위의 기준 인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한 군세로서 영양군과 합병설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일부 기관은 이미 통합되어 운영되는 등 영양군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심한 편이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나무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사람이 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무는 온전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받는 나무의 스트레스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나무에게는 다시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양군은 문향이다. 「변경」 「황제를 위하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 수많은 문학 작품을 쓴 「이문열」의 생가가 소재지에서 가까운 두들마을에 있고, 민족시인 「조지훈」을 배출한 주실마을이 일월면 주곡리에 있다. 주곡마을에는 삼불차 三不借라는 전통이 있다. 첫째는 재불차 財不借로 남에게 재물을 빌리지 않는다. 둘째는 인불차 人不借 사람을 빌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문불차 文不借인데 문장 즉 글을 빌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삼불차는 마을이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어 작은 마을에 14명의 박사가 배출되었고, 여러 명의 대학교수와 사성장군 四星將軍 등을 배출하고 있다.

영양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한다.

아주 옛날, 석보면 맹동산 삼의골에 황씨 성을 가진 젊은이가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화전을 일궈 먹는 살림이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아들과 예쁜 마누라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당시의 국법에는 칠십이 넘는 부모는 고려장을 하도록 국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나라 법이 이렇

다 보니 이 젊은이도 국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아들은 칠순의 어머니를 지게로 짊어지고 어린 아들을 길잡이 삼아 집을 나섰다. 지게에 얹혀가는 노모는 자신이 고려장을 당한다는 사실을 짐작했으나 내색하지 않고 아들의 지게에 얹혀 산속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가던 아들이 개울가 너럭바위에 지게를 내려놓았다.

어느 사이 해는 서산에 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를 버려두고 돌아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너무나 깊은 산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을 잃은 것이다. 아들의 걱정을 눈치챈 어머니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오는 길에 나뭇가지를 꺾어 두었으니 따라가면 될 것이다.”라고 일러주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는 아들 지게에 얹혀 오면서도 나뭇가지를 꺾어 아들이 돌아가는 길을 표시해둔 것이다. 어머니가 꺾어 둔 나뭇가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집 앞 개울가에 이르러 지게를 버렸다. 그런데 그때까지 말없이 따라오던 아들이 아버지가 버린 지게를 얼른 주워 오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아버지가 물었다. “이 지게가 있어야 저도 나중에 아버지를 저다 버리지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들의 대답에 충격을 받은 아버가 그 길로 원남에게 달려가서 사건의 선후를 고하고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아들의 효성에 감복한 원남의 허락으로 그 효자는 다시 어머니를 모셔왔고, 그 이후 나라에서는 고려장을 금한다는 어명이 내려졌다. 영양지방에서 촌로들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전설이다. 🌲

정조는 왜 나무를 많이 심었을까?

시인 · 역사칼럼니스트 신현배

1776년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선 제22대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를 ‘장헌세자’로 추존하고, 양주에 있던 묘를 수원 화성으로 옮겨 ‘현릉원’이라 했다가 다시 ‘용릉’으로 올렸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하러 자주 수원 나들이를 했다. 정조가 참배를 갈 때 이촌동과 노량진 사이에 배다리를 놓아 한강을 건넌 일은 유명하다. 정조가 자주 수원 나들이를 했다고 하니,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알겠다. 정조가 자주 수원 나들이를 한 것은 수원에 화성이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정조는 2년 7개월의 공사 끝에 수원에 화성을 쌓았는데, 조선의 수도를 화성으로 옮길 생각을 했다는 거다.

서울에서 수원까지는 45킬로미터인데, 정조는 1,700명의 수행원과 800필의 말을 이끌고 이를 만에 다녀오곤 했다. 길을 가득 메운 정조의 행차는 상상만 해도 장엄하고 멋지다. 수원에는 지금도 노송 지대라는 곳이 남아 있다. 노송 지대는 지지대 고개에서 현릉원까지 10여 길에 조성된 소나무 숲을 말한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성으로 옮겨 현릉원이라 하고는, 현릉원에서 나무를 가꾸는 관리인 식수관을 불러 말했다.

“소나무 500그루를 사서 길가에 심도록 하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식수관은 정조로부터 1천 냥을 받아 소나무 500그루를 사서 심었다. 이리하여 현릉원에 이르는 길에 소나무 숲이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정조는 현릉원에 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곳에 소나무 숲이 생기자 백성들이 소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쓰는 것이다. 관리들이 감시를 해도 한밤중에 몰래 소나무를 베어 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었다. 정조는 생각다 못해 관리들을 불러 말했다.

“소나무마다 엽전을 매달아 놓아라.”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관리들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엽전을 매달아 놓으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꼭 나무를 베어 가야 할 형편이라면 엽전으로 땔감을 사라는 거야. 그러니 제발 나무를 베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사정하라.”

정조의 간절한 호소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뒤부터는 소나무를 베어 가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또 걱정거리가 생겼다. 소나무 숲에 송충이가 늘어나 마구 솔잎을 갉아먹는 것이다. 고을 사람들에게 송충이를 잡아오면 송충이 한 사발에 엽전 7푼씩을 준다고 해도 송충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어느 날 현릉원에 온 정조는 송충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나무들을 보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송충이 몇 마리를 잡아오게 하여 손바닥에 올려 놓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송충이야, 어째서 아버지의 몸이나 다름없는 현릉원의 소나무 솔잎을 갉아먹느냐? 차라리 내 오장을 갉아먹어라.”

정조는 송충이를 입에 넣어 삼켜 버렸다. 그 순간, 그 곳에서는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 정조의 효성에 감동한 까치와 까마귀가 수만 마리나 날아와 송충이를 모조리 잡아먹는 것이다. 이 일이 알려지자 백성들은 정조야말로 하늘이 낳은 효자라며 그의 효성을 칭송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중국 당나라 태종이 메뚜기를 입에 넣어 삼켰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 628년 흉년이 들고 남은 곡식마저 메뚜기 떼가 잡아먹자, 태종은 메뚜기 몇 마리를 잡아오게 해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다.

“백성은 곡식을 먹어 생명을 이어가는데, 네가 곡식을 먹어 치우니 내 백성을 해치는 셈이다. 차라리 내 심장을 잡아먹고 내 백성을 해치지 말라.”

태종은 그 자리에서 메뚜기를 입에 넣어 삼켜 버렸다. 그러자 그 뒤로 두 번 다시 메뚜기가 곡식을 잡아먹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정조 때에 공필장이란 효자가 전라도 장성 땅에 살았다. 그는 어머니 3년상을 마친 뒤에도 새벽마다 어머니 묘소를 참배했다. 9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그 이을 그만두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 무덤 앞에 있는 소나무와 개오동나무가 해충 때문에 시들어가자, 공필장은 목 놓아 울며 해충을 잡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수천 마리의 새가 날아와 해충을 모조리 물어다가 대천에 버렸다고 한다. 정조가 송충이를 입에 넣어 삼킨 이야기는 당나라 태종과 공필장 이야기를 합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임을 알 수 있겠다. 왜 이런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만들어져 전해 내려왔을까? 그것은 정조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효자였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지만, 정조는 우리나라 임금들 가운데 가장 나무를 많이 심은 ‘식목 왕’이었다. 그의 명령으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현릉원에 심어진 나무만 해도 무려 1,200만 그루나 되었다고 한다.

정조는 언제 어느 곳에 누가 나무를 심었는지 상세히 기록을 남기게 했다. 어떤 종류의 나무를 몇 그루나 심었고, 나무를 심은 백성들의 이름과 감독관의 이름, 그 고을 사또와 아전들의 이름까지 밝혀 놓았다. 그리고 나무를 심은 뒤에는 반드시 상을 내렸는데, 그 내용을 기록했다.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성으로 옮기고 7년이 지난 정조 20년(1796년) 정조는 현릉원에 심은 나무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조 13년 가을 처음 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해마다 나무를 심었는데, 그때마다 기록을 남기게 했으니 그 문서만 해도 수레에 실으니 소가 땀을 흘릴 정도로 많았다.

정조는 총애하는 신하인 정약용을 불러 이런 명령을 내렸다.

“7년간의 나무 관련 문서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해라. 그 동안 나무를 얼마나 심었는지 궁금하니..... 분량이 많아도 한 권을 넘지 않게 하라.”

“알겠습니다.”

정약용은 수레에 가득한 나무 관련 문서를 한 장의 문서로 정리하여 정조에게 보고했다.

“나무 관련 문서를 연표로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소나무 · 전나무 · 상수리나무 등 심은 나무가 총 1,200만 9,712그루였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이 올린 한 장의 문서를 모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나무 관련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정리할 분량이 한 권은 될 줄 알았는데 너는 한 장의 문서로 간략하게 정리했구나. 나무를 심은 연도, 나무의 종류, 나무의 수 등을 일목요연하게 연표로 만들어 기록하다니..... 아주 훌륭하다.”

정조가 현릉원에 7년 동안 심은 나무만 해도 1,200만 그루였다. 그러니 임금의 자리에 올라 전국 곳곳에 심은 나무는 수천만 그루가 되지 않을까.

정조가 나무를 심게 된 것은 아버지 사도세자 때문이었다. 사도세자는 영조 36년(1760년) 온양 행궁에 행차했을 때 행궁 앞에 느티나무 세 그루를 심은 적이 있었다. 그는 다리에 생긴 종기를 치료하러 온양 온천에 갔는데, 행궁에서 열흘 동안 머물며 활쏘기를 했다. 그런데 화살 다섯 발이 모두 명중하여 이 일을 기념하려고 온양군수를 시켜 느티나무 세 그루를 심게 했다. 정조는 이 일을 언제 처음 알았을까? 아버지 사도세자가 나무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처음으로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은 곳은 사도세자 사당인 경모궁이었다. 경모궁은 지금의 서울대병원 자리인데, 정조는 이곳에 소나무 · 은행나무 · 버드나무 · 삼나무 · 단풍나무 · 매화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성으로 옮겨 현릉원을 조성할 때 본격적으로 나무 심기에 나섰다. 정조는 화성 언덕에서 “이 산 이름이 ‘꽃 화(花)’에 ‘되 산(山)’이니 꽃나무를 많이 심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나무를 많이 심었다.

정조는 조선 시대는 물론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나무를 가장 많이 심은 ‘식목 왕’으로 역사에 남아 있다. 🌳

노거수산책 (I) 「창원 북부리 팽나무」

천연기념물 제573호



박정기

(사)한국조경수협회 이사
곰솔조경 대표



소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102-1 *동부마을
제원 : 수고 16미터, 수관 폭 27미터, 흉고 둘레 6.8미터
수령 : 450년 추정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소덕동 팽나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우영우 신드롬에 국가(문화재청)도 움직였다. 드라마에서 ‘소덕동 팽나무’는 마을을 지켜 냈고 현실에서 ‘동부마을 당산나무’는 천연기념물이 되었다. 북부리 팽나무는 ‘박정기 팽나무’라고도 불린다. 이 나무를 내가 세상에 알렸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에 처음 찾아서 2015년 4월 15일에 경남도민일보 첫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20일에는 TV조선 뉴스를 탔다.



7월 16일 창원시보호수가 되었다. 10월 15일 환경생태학회에 제원 우수성을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2018년까지 답사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1년 2월 6일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우수 잠재 자원’으로 추천 하였다. 금메달급 노거수가 동메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10월 7일 MBC-TV <뿌리깊은 나무>에 소개했고 2022년 7월 27일 후속 촬영하여 8월 3일에 방송되었다. 스크린투어리즘(screen tourism)이 한창일 때 북부리 팽나무 자료를 넘기고 얼마 받았느냐는 질문에 시달리기도 했다. 드라마 제작팀의 검색 능력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오해이다.



북부리 팽나무는 낙동강 충적평야 가운데 살짝 솟은 독피산 꼭대기에 뿌리 내리고 있다. 예로부터 이런 곳은 땅(人)의 염원이 하늘(神)에 닿는 산정제사(山頂祭祀)가 행해지는데 산은 당산이고 나무는 신목이다. 강과 들을 아우르는 탁 트인 경관은 호연지기 다지기에 좋지만, 토심이 얇고 유기물 집적(集積)이 부족하여 강한 일조와 바람에 증산량이 많아 물과 무기염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우영우 팽나무’가 아니고 ‘박정기 팽나무’는 더욱 아니다. 역겹의 세월을 흘러온 낙동강이 만든 지구과학의 산물이다. 독피산을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될 수 없었던 자연환경은 당산문화를 낳았다.



제례의식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였기에 가슴높이 둘레가 가장 큰 천연기념물 팽나무가 되었다. 앞으로도 생태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적으로 이용하여 ‘동부마을 당산나무’로 오래오래 살아가시길 염원하며 두 손 모운다. 🌳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 박 정 기

신규회원사 (2023.01-03)

지회	회사명	성명	연락처	주소
전남동부		장동연	010-5074-060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235-1
전남동부	(주)삼인토건, 삼인조경	유창남	010-3603-912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낙동원로 36
광주전남 서부	주식회사 스틸데코	강애란	062-376-5224 010-5267-52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18번길 47-13
광주전남 서부	농업회사법인 향수농원(주)	김영일	010-7429-0125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16-2
부산	주식회사 허브동산	장기웅	051-902-1755 010-2564-5306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093, 수광빌딩 1002호
전남동부	수영농원	황윤민	061-752-1913 010-7759-7854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지본리 307-3
전남동부	아영농원	송영민	061-755-6247 010-6645-5677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월곡안길 96
광주전남 서부	빛가람조경(주)	임관택	062-525-1549 010-3608-1546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83, 2층
전북동부	동촌농원	양승만	010-4775-9968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동촌길 50-2
전북동부	장수조경수유통센터	김현길	063-353-0412 010-2944-0626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한거1길 13, 1층
전남동부		조병천	010-3614-7243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곡순로 2006-9
경기	농업회사법인 (주)더케이야생화	홍성현	031-321-9893 010-3089-989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전궁로 16번길 41
경기	농업회사법인 (주)지인정원	김지인	031-480-5008 010-4576-052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이로 364-32
전북서부	유진조경 주식회사	홍유진	063-272-1447 010-3670-674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58
광주전남 서부	(주)로엘	노선민	062-222-0973 010-4441-6908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902호(제일오피스텔)
경기	무성조경	신준희	031-613-8915 010-6245-7479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3길 12, 101동
전남동부	금명농원	김장식	061-754-9938 010-3647-993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48-5
전남동부	소정농원	배준호	010-4640-0423	전라남도 순천시 연동남길 24, 연동대주파크빌1차아파트 107동 203호
전남동부	미향농원	배명일	061-755-7774 010-2811-5022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노은3길 16
광주전남서부	주식회사 원우	최요인	062-365-0255 010-3636-1862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200번길 5-1, 2층
광주전남서부		신연중	061-383-3002 010-8602-3000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돌담길 86, 매화나무집
광주전남서부		신희순	010-6608-677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죽동길 79

회원사변경 (2023.01-03)

업체명	대표자	변경종류	변경후
달봉농원	김정현	주소변경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당지길 45-9
(주)녹색조경	장용기	주소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우로378, 4층
(주)청산조경	강선도	주소변경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묵성로 281
앞산수목원	오창록	대표자변경	최태옥→오창록
한진조경	최윤우	주소변경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속햇말길 10
송정조경(주)	김정욱	주소변경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81번길 7, 3층
(주)미르	이용우	주소변경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내남송길 98-20
(주)현대조경	서명주	주소변경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변영길 94, 동성아파트 101동 1501호
숲조경	조고봉	상호변경	우보조경농원→숲조경
생생조경	정지원	상호,주소변경, 일반전화삭제	변경:칠보농원→생생조경, 주소: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6-2, 성산아파트 101동 507호
테크트리	허재용	상호추가	테크트리
움디자인	신현수	상호추가	움디자인
현대식물원	박중현	주소변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636
팔공건설조경	이주은	상호추가	팔공건설조경
(주)신우조경	박경원	주소변경, 일반전화, 팩스 추가	주소: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497, 2층, 일반전화:063-221-1496, 팩스:063-222-1496
대일농장	이제현	대표,핸드폰변경	대표:이일권→이제현, 핸드폰:010-5532-7409
사촌조경수농원	허영준	대표,핸드폰, 주소변경	대표:허근중→허영준, 핸드폰:010-8648-1559, 주소: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23
금잔디조경(주)	배영규	주소변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50, 1층
(주)들꽃세상조경산업	양화숙	핸드폰변경	010-4095-0954
임기조경	서재운	주소변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1길 1-18
현진조경(주)	김진걸	주소변경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안터길 63
(주)한가람조경	류재선	일반전화변경	062-362-5552
(주)명일건설	동일부	상호,주소변경	상호:한서조경건설(주)→(주)명일건설, 주소: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열산골길 5

우리 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납부해 주시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액

회비납부액			
회장	13,000,000원	부회장	2,600,000원
감사, 지회장, 이사	650,000원	일반회원	본회 150,000원 (지회비 별도)

※ 지회비는 각 지회로 별도 문의 요망

• 회비 납부 계좌

지회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중앙회 (*임원 회비입금처)	농협	031-01-362481	한국조경수협회
서울	기업	088-160417-01-013	최중서
경기	농협	302-1421-0329-11	송병수 (사)한국조경수협회 경기지회
강원	농협	351-0802-3423-13	김진걸
충북	농협	352-2078-8185-83	조경수협회 충북지부 이상국
대전·세종·충남동부	농협	352-1714-0067-63	송대영
충남서부	농협	352-1240-2624-53	안신
전북동부	농협	352-1710-6368-53	송인자 (사)한국조경수협회
전북서부	농협	351-1266-1784-43	권일병
전남동부	농협	356-1573-9347-53	송종일
광주·전남서부	산림조합	601-11-0003074	한국조경수협회 광주전남서부지회
대구·경북	농협	317-0026-7142-91	한국조경수협회 대구경북지부
경남중부	농협	356-1357-3775-13	경남중부지회
경남서부	국민	580902-01-512734	이제현
울산	국민	866001-01-365763	이윤해
부산	부산	112-2157-0993-03	박미애
제주	농협	979-12-275401	김승철

산림청 단기소득임산물 금년도 추진계획

1. 사유림 경영지원 강화 및 경영주체 육성

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임업인 자긍심 고취 기회 마련

-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주 임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 개정 추진
 - 현행 임업진흥법 을 사유림경영법 으로 개편 전환(2월)
 - * (추가 신설) 산림명문가, 분쟁조정위원회 등, (제외 이관) 목재비축림, 임업기계장비 등
- (신규) ‘임업인의 날 11.1’ 행사를 통해 임업인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
 - 산림산업 등 발전에 기여한 임업인에 대해 정부포상 수여
 - * 산림사업유공 정부포상 규모(안) : 10점(훈장2, 포장3, 대통령표창2, 국무총리표창3)
 - 3대 이상 대를 이어 산림을 가꾸어 온 산림명문가 선정 및 운영 규정의 법제화 추진을 통한 선정기준, 혜택 등 개선



나.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 임업 협·단체 등 건의사항을 반영한 '23년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시행
 - 협회분 집행기간 및 비협회분 신청기간 확대를 통한 집행을 제고
 - * 협회분 집행기간 : ('22) 4.1. ~ 9.30.(6개월) → ('23) 3.1. ~ 12.31.(10개월)
 - * 비협회분 신청기간 : ('22) 2~3월, 6~7월 → ('23) 연중수시
- 지출구조 조정(융자 → 이차보전)을 통한 산림금융 서비스 효율성 제고
 - * 대출심사 기간(△23일 : (융자 86일 → (이차보전) 63일

다.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제혜택 개선

- 산림·임업 분야 세제개선 TF 구성(2월) 및 간담회 개최(3월)
- 전문가, 협·단체 담당자가 함께 신규 세제 발굴 및 일몰 도래 조항 분석하여 감면 건의서 제출 (3~4월)
 - 조경수 생산 자재 부가세 환급,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에 동력 수목굴취기 및 고소작업차 포함 등

2.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

가.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4월 공모) : ('22까지 520개소 → ('23) 27개소
 - * ('22) 32개소38억원 → ('23) 27개소28억원(전년대비10억원감)
-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복합경영 지원
 -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4월 공모) : ('22까지 344개소 → ('23) 15개소
 - * ('22) 39개소53억원 → ('23) 15개소44억원(전년대비9억원감)

나.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장비 및 친환경 재배관리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장비 및 작업로 시설(보수), 산림버섯재배예방시설(보완), 밤나무 노령목 관리 지원 (61억원)
 - * 생산장비 : 굴착기, 4륜구동 오토바이, 임산물 수확기, 병해충 방제용 장비 등
- 연작으로 지력 약화 및 산성화된 임산물 재배지의 토양을 개량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 (21억원)
 - * 토양개량제는 산성염 미포함으로 제한하고, 유기질비료의 지원 단가를 통일

다. 임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제도개선 및 단계별 지원체계 정착
 - 임업인 현장 수요를 고려한 임산물 생산분야 현장 지원제도 개선(하반기)
 - * 작업로 위험구간 포장, 산림경영관리사 세부기준 마련 등
 - 임업경험 1년 미만 임업인은 관련 교육 이수 후 1억 미만 소액사업 지원, 사업완료 후 평가를 거쳐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체계 정착
 - * 소액사업 예산 : ('22) 122억원 → ('23) 141억원(전년대비19억원증 +15.6%)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은 사업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임산물 재배 중인 임업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해 전문임업인 육성체계 정립

3. 단기소득임산물 유통·소비 촉진 및 피해복구 지원 강화

가.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규모화 지원을 통한 유통 경쟁력 제고

-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규모화, 현대화 지원으로 유통경쟁력 강화
 - * 산지종합유통센터 : ('22까지 151 → ('23 계획 8개소 20억원보조율: 5:2:3)

나. 수요자 맞춤형 입엽관측 및 임산물 유통가격정보 제공 확대

- 조경수종 가격정보 조사 확대, 관측 품목 확대 등 사업 내실화
 - * 조경수 관측 수종 확대 : ('22까지 33개수종→'23 계획 100여개수종
 - ** ('22) 밤 표고 대추 뽕은감 산나물 조경수→('24까지 호두 복분자추가
- 임산물 가격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DB 확대 추진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뢰성 있는 유통 정보 실시간 제공(연중)
 - 품목별·등급별,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비지가격 정보 제공
 - * 가격정보 조사지역 확대 : ('22까지 92개→'23 계획 99개

다. 임산물 소비촉진 공모사업으로 임업인 역량강화 도모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협회 대상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공모 추진(265백만원)(2월)
 - 직거래 장터, 우수임산물 전시, 소비촉진 교육 분야로 나누어 공모
 -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
- '22년소비촉진공모사업결과만족도조사 참여인원등 분석·환류

라. 자연재해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및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임가의 경영복귀를 제고 및 재해안전망 구축(연중)

- '23년 기준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수집 철저 및 행안부, 기재부, 농림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
- 작업로 등 복구단가 현실화로 내실있는 재해복구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한 산림작물 등 피해의 신속한 복구 지원체계 강화
 - * 조사요령, 우수사례, Q&A 등 매뉴얼 제작·배포(3월)



창조적 친환경 조성, 한국조경수협회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는 창조적 친환경 조성에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경영을 현대화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회원사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1. 임업정책자금(조경수생산자금)을 해당 산림조합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2. 조경수생산 및 녹화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여 공급해 드립니다.
3. 산림소득사업공모(조경수컨테이너 재배)시 컨설팅 및 공모사업 신청서를 대행 작성해 드립니다.
4. 한해 대비 조경수생산농장 급수원 개발을 위하여 관정시설사업 국고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5. 조경수 생산계획, 생산기술, 판매에 대한 최신정보를 협회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6. 조경수 가격, 공사품셈, 회원명단이 게재된 조경수목가격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7. 협회 홈페이지「조경수 매물정보」코너(조경수 사진매물, 급매물 등)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최신 조경수 생산기술 및 관련정보의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국내선진지 시찰, 기술세미나 등 협회주관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조건 : 조경수를 0.5ha이상 재배하는 자
- 문의처 : TEL 042-822-5793~4 FAX 042-822-5797

조경수 직거래 안내

- ▶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www.klta.or.kr)에서는 조경수 매물, 매입의 직거래를 할수있습니다.
- ▶ 이용료 납부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내 시간에 구매없이 매물을 올릴 수 있고, 사진이 공개되어 바로 거래가 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분은 협회에서 도와드립니다.)

추천매물 농장	조경수 사진매물 급매물, 묘목매물	조경수 매입
이용료 연 30만원 (홈페이지제작시 별도비용발생)	연 7만원 6개월 5만원	무료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

